

그림 여행



한 관심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작품 활동 내내 왕성한 창작력의 원천이 되었다.

에드 루샤는 "우리 시대의 진짜 풍경은 기호와 상징, 그리고 얼룩이 함께 섞인 리본이다" 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시각적 이미지를 정의했다. 그의 작품세계에 전통적인 구상화나 추상화 같은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풍경의 삭막함과 공허함을 단순하고 순수한 화면 위에 직접적인 언어 그 자체로 표현했다. 그의 작품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인간의 복잡한 내면은 드러나 있다.

'90퍼센트 천사 10퍼센트 악마' 라는 이 그림은 얼핏 보면 한 조각의 포스터처럼 보인다. 붉은 화면 위에 '90퍼센트 천사' 라는 글자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속에 작지만 너무나 뚜렷하게 검은 글자로 '10퍼센트 악마' 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 보인다. 흰색으로 거의 천사가 될 뻔한 그림이 그 속에 숨어있는 조그만 악마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그림이 되어버렸다. 참으로 통렬하고 신랄하게 인간의 속성을 표현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처럼 보이는 인간이라도 그 내면에 10퍼센트의 악마가 깃들여 인간은 결국 완전한 선함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가 거의 종교적으로 다가온다. 이 그림과는 반대로 '90퍼센트 악마, 하지만 10퍼센트 천사' 라는 그림도 있다. 완전히 붉은 화면에 '90퍼센트 악마' 라는 단어가 더 붉게 물들어 있는 가운데 '하지만 10퍼센트 천사' 라는 하얀 단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떠오르는 그림이다. 둘 중에 어느 그림이 인간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김 동백

90퍼센트 천사 10퍼센트 악마 (90% Angel 10% Devil)

에드 루샤 (Ed Ruscha 1937 -)  
(캔버스에 유채 20 in x 24 in c, 1982)

미국 작가 에드 루샤의 작품세계를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의 작품들이 너무나 방대한 스케일로 온갖 장르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쿨버 시티에서 태어난 에드 루샤는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광고 회사와 잡지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경력을 시작했다. 글자와 인쇄매체에 대



미술 상식



▲ 파블로 피카소의 '우는 여인(Weeping woman)', 1937년, 세로 60cm, 가로 49cm, 캔버스에 오일, 영국 런던의 테이트갤러리 소장 출처=late.org.uk

■ 큐비즘(Cubism)

큐비즘(입체파 혹은 입체주의)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의 풍경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 브라크가 프랑스의 남쪽 지방 레스타크에서 사생을 하면서 그린 풍경화를 두고 마티스가 입체적 회한함(bizaneries cubique)이라고 풍자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피카소, 브라크 등 입체주의를 대표했던 화가들은 형태의 완전한 추상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그림은 화가가 느끼고 경험했던 대상을 여러 시점과 각도에서 한 쪽에 그려내 감상자로 하여금 그 대상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입체주의는 대상에서 형태를 해방시켰으며,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 (위키백과)



어바인 Total Care  
임플란트 치과

시니어 스페셜!

65세 이상 메디케어로 받치,  
뼈이식등 구강외과 혜택 가능

메디케어 인증 병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로 무절개,  
무통증, 빠른 회복, 치과공포 있으신 분  
정맥마취로 자면서 치료 가능



James Kim 치과  
949.727.0777  
한국어문의 949-702-7811  
113 waterworks way #220  
Irvine, CA 92618  
74420 Hwy. 111 Suite 1, Palm Desert, CA 92260  
760.779.5662 (팜스프링 지점)

